

다문화 가정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 변화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장벽 차이

윤홍주, 최효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in Life, and Career Barrier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Career-Related Support Behavior of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ongju Yun, Hyo-Sik Choi*

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및 진로장벽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의 6차년도 자료(2016년, 중3)부터 8차년도(2018년, 고2) 자료까지 3개년도 92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장혼합모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3-고2 시기 동안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은 공통적으로 4개 잠재계층(상-증가형, 중상-무변화, 중-감소형, 중하-감소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공통적으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높은 잠재계층 순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초깃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계층에 따라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공통적으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높은 잠재계층 순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초깃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진로장벽 인식의 3개 하위 요인(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자기이해 부족, 경제적 어려움)에서 중상-무변화, 중-감소형, 중하-감소형 집단이 상-증가형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 인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atent group classification based on the changes in the career-related support behaviors of parents and examine any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life satisfaction, and career barriers depending on the classified groups using the data of 923 adolescents in the 6th to 8th-year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results of group classification that explored the growth type of changes in the career-related support behaviors indicated the following four main groups: high-increasing, upper middle-unchanged, middle decreasing, and below middle-decreasing. Second, when both the mother and father showed more career-related support behaviors, the initial value of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was high,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s in career-related support behaviors differed according to the latent groups. Third, similar patter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related support behaviors, the initial valu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related support behaviors of parents led to a high initial value in life satisfaction of their children. However,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decreased gradually. Fourth, children in groups of the upper middle-unchanged, the middle decreasing, and the below middle-decreasing perceived more career barriers than children in the high-increasing group.

Keywords :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Life Satisfaction, Career Barrier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이 논문은 2021년 춘천교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e.ac.kr

Received June 15, 2021

Revised June 30,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이다[1-4].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특성에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는데, 세 가지 이유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5], 삶의 만족도[3, 6], 진로 발달[2, 7, 8]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지만,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 또한 대다수 횡단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이 자녀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변화 양상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 발달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셋째, 부모의 진로관련행동과 자녀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 발달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다수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부모의 진로관련행동과 자녀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 발달 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일반 가정 청소년보다 학업, 학교생활적응, 정신건강, 진로장벽, 진로 포부 등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9-13]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3-고2 시기 동안의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 변화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장벽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는 자녀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의 부모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4]. 청소년기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성인기의 성공적인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1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은 간섭(interference), 지지(support), 관여 부족(lack of engage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16]. 특히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중 진로 분야의 체험기회 및 직업 정보를 찾도록 격려하고, 진로 선택에 대한 조언 등을 제공하는 지지는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17].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진로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 준비, 학교 참여를 순차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18]. 또한,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19],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0]. 진로개발역량 수준에 따른 잠재계층 탐색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부모와의 진로 관련 대화를 많이 할수록 최고역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21]. 자녀가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을 '높은 지지-낮은 간섭과 관여부족', '높은 지지와 간섭-낮은 관여부족'으로 지각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장벽인식을 갖는다[22].

또한, 부모의 양육 특성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23], 부모의 양육 행동이 부모-자녀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Levin 외[24]에 따르면 가족 구조, 가구의 경제적 수준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더 많이 설명한다. 이는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가 스트레스의 완충재 및 적응적 기능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경험적 연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권위 있는 양육 행동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25],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3]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부모의 진로 지지가 진로 적응성을 부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6].

부모의 권위 있는 양육 행동, 모니터링, 부모-자녀 간 친밀한 애착 형성은 청소년의 자기 가치, 학업 참여, 자기 주도적 학습 등에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를 향상시킨다[27-29]. 부모-자녀 관계는 희망, 효능감, 탄력성, 긍정성의 긍정심리자본을 축적함으로써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한다[4]. 일반적으로 자녀와 학교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는 등의 부모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30], 자율성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더 나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이는 경향성이 있다[31 재인용].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및 진로장벽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은 어

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에 따라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장벽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원 행동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6차년도 자료(2016년, 중3)부터 8차년도(2018년, 고2) 자료까지 3개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는 다문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자녀가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 모두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33].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진로관련 지원 행동 3개년도 자료 중 2번 이상 응답한 923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6차년도 자료(2016년, 중3)부터 8차년도(2018년, 고2)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아라 외[32]의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 중 지지(3문항)를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문항은 '진로 분야의 체험기회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해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어머니 지지 6차 $\alpha=.859$, 7차 $\alpha=.864$, 8차 $\alpha=.863$, 아버지 지지 6차 $\alpha=.870$, 7차 $\alpha=.879$, 8차 $\alpha=.891$ 이다.

2.2.2 학업성취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6차년도 자료(2016년, 중3)부터 8차년도(2018년, 고2)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국어, 과학, 영어, 사회, 수학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매우 못하는 편이다(1점) ~ 매우 잘하는 편이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6차 $\alpha=.798$, 7차 $\alpha=.769$, 8차 $\alpha=.732$ 이다.

2.2.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6차년도 자료(2016년, 중3)부터 8차년도(2018년, 고2)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3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6차 $\alpha=.821$, 7차 $\alpha=.791$, 8차 $\alpha=.808$ 이다.

2.2.4 진로장벽인식

고2 시기의 진로장벽인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8차년도(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은설[34]의 진로장벽 척도를 활용하였다. 자기이해 부족(3문항),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3문항), 경제적 어려움(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문항은 자기이해 부족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지 못한다.', 경제적 어려움 '원하는 학원(과외)에 다닐 형편이 안돼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자기이해 부족 $\alpha=.901$,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alpha=.858$, 경제적 어려움 $\alpha=.776$ 이다.

2.3 분석 방법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 방법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에 따른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차이 검증을 위해 다집단 성장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BCH 방법을 사용하여 진로장벽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35].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으며, Mplus 8.3,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다문화 가정 부모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8차년도 자료 기준). 어머니의 출신 국가는 한국 1명(.1%), 중국(한족, 기타민족) 58명(6.3%), 중국(조선족) 143명(15.5%), 베트남 18명(2.0%), 필리핀 212명(23.0%), 일본 317명(34.3%), 태국 36명(3.9%), 기타 46명(5.0%), 무응답 92명(10.0%), 아버지의 출신 국가는 한국 831명(90.0%), 무응답 92명(10.0%)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416명(45.1%), 여학생 457명(49.5%)이며, 무응답 50명(5.4%)이며, 연령은 16세 67명(7.3%), 17세 776명(84.1%), 18세 27명(2.9%), 19세 2명(.2%), 20세 1명(.1%), 무응답 50명(5.4%)이다.

3.2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

중3-고2 시기 동안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무변화 모형보다는 선형변화 모형이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를 더 잘 설명하였다.

이에 선형변화를 가정한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계층을 탐색하였다(Table 3 참조). 통계적 적합도를 의미하는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값이 적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값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트로피(Entropy)는 분류의 정확도를 의미하는데, 0과 1 사이의 표준화된 값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23)

Variables	Category	N	%
Mother's nationality	Korean	1	.1
	China (Han Chinese)	58	6.3
	China (Korean-Chinese)	143	15.5
	Vietnam	18	2.0
	Philippine	212	23.0
	Japan	317	34.3
	Thailand	36	3.9
	Etc.	46	5.0
	No response	92	10.0
Father's nationality	Korean	831	90.0
	No response	92	10.0
Adolescents' gender	Male	416	45.1
	Female	457	49.5
	No response	50	5.4
Adolescents' age	16	67	7.3
	17	776	84.1
	18	27	2.9
	19	2	.2
	20	1	.1
	No response	50	5.4

Table 2. Model fit indices

Model	χ^2	df	CFI	TLI	RMSEA (90% C.I.)	SRMR	Mean	
							Intercept	Linear
Mother	No growth	36.151***	4	.929	.947	.093(.067-.122)	.115	2.833***
	Linear	7.874**	1	.985	.955	.086(.038-.147)	.022	2.868*** -.036**
Father	No growth	71.060***	4	.847	.885	.135(.108-.163)	.153	2.681***
	Linear	4.969*	1	.991	.973	.066(.018-.128)	.018	2.757*** -.079***

* p<.05, ** p<.01, *** p<.001

Table 3. Tests of unconditional models with 2-7 classes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Mother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6 class	7 class
AIC	5154.230	5041.347	4867.110	4812.028	4782.705	4387.097
BIC	5192.851	5094.451	4934.697	4894.098	4879.257	4498.132
SABIC	5167.444	5059.516	4890.235	4840.108	4815.740	4425.087
Entropy	.741	.749	.907	.889	.894	.955
LMR LRT(p)	.0000	.0647	.0000	.0000	.0000	.0065
BLRT(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class 1(%)	81.6	71.5	59.2	12.9	25.0	12.9
class 2(%)	18.4	15.1	22.4	13.8	1.8	14.0
class 3(%)		13.4	13.7	43.3	2.9	15.5
class 4(%)			4.8	4.8	43.3	8.2
class 5(%)				25.2	13.8	4.8
class 6(%)					13.1	35.2
class 7(%)						9.4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Father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6 class	7 class
AIC	5611.158	5532.977	5254.641	5182.496	5138.412	5128.853
BIC	5649.779	5586.081	5322.227	5264.566	5234.965	5239.889
SABIC	5624.372	5551.146	5277.765	5210.576	5171.447	5166.843
Entropy	.725	.721	.932	.906	.900	.914
LMR LRT(p)	.0000	.0033	.0000	.0000	.0000	.4111
BLRT(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class 1(%)	21.9	15.8	49.9	9.6	4.8	23.6
class 2(%)	78.1	73.3	29.5	23.5	4.9	5.2
class 3(%)		10.8	9.6	36.0	36.0	9.6
class 4(%)			10.9	10.9	19.9	19.9
class 5(%)				19.9	23.5	30.6
class 6(%)					10.9	10.7
class 7(%)						.3

니와 아버지 모두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의 엔트로피 값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LMR LRT와 BLRT는 모형 간 적합도 비교를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 잠재계층의 수를 많이 설정한 조건모형이 적게 설정한 조건모형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잠재계층의 수가 7개인 모형에서만 LMR LRT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41, 42]. 종합적으로 정보지수, 모형 비교 검증, 분류율 및 분류의 질, 해석의 용이성에 기초했을 때[36]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정확도를 의미하는 평균 사후확률을 보면 어머니 모형(잠재계층 4개로 가정)의 평균 사후확률의 범위는 .928~.983이며, 아버지 모형(잠재계층 4개로 가정)의 평균 사후확률의 범위는 .955~.98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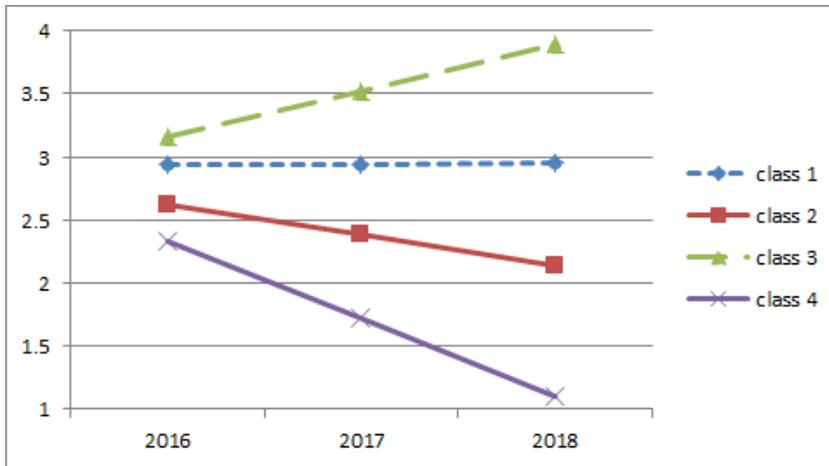
어머니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3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지만,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의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상-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546명(59.2%)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934($p<.001$), 선형변화율 .007($p>.05$)이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3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207명(22.4%)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619($p<.001$), 선형변화율 -.238($p<.001$)이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3년 동안 가장 높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126명(13.7%)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3.167($p<.001$), 선형변화율 .360($p<.001$)이다. 네 번째 잠재계층은 3년 동안 가장 낮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하-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44명(4.8%)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331($p<.001$), 선형변화율 -.612($p<.001$)이다.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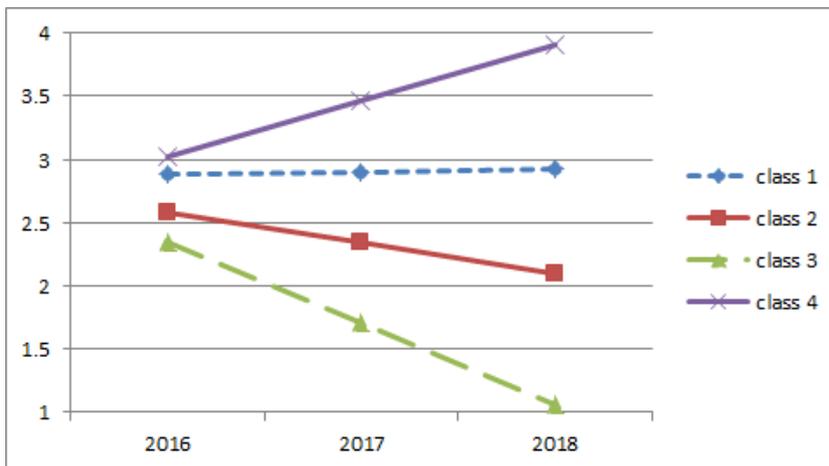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지만,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의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상-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461명(49.9%)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880($p < .001$), 선행변화율 .025($p > .05$)이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3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272명(29.5%)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584($p < .001$), 선행변화율 $-.244$ ($p < .001$)이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3년 동안 가장 낮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하-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89명(9.6%)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2.345($p < .001$), 선행변화율 $-.641$ ($p < .001$)이다. 네 번째 잠재계층은 3년 동안 가장 높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



※ Class 1: upper middle-unchanged group, Class 2: middle-decreasing group, Class 3: high-increasing group, Class 4: below middle-decreasing group

Fig. 1. Profile plot of the 4-class model (Mother)



※ Class 1: upper middle-unchanged group, Class 2: middle-decreasing group, Class 3: below middle-decreasing group, Class 4: high-increasing group

Fig. 2. Profile plot of the 4-class model (Father)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Mother	1(upper middle-unchanged group)	2.934*** (.024)	.007 (.013)
	2(middle-decreasing group)	2.619*** (.046)	-.238*** (.024)
	3(high-increasing group)	3.167*** (.056)	.360*** (.029)
	4(below middle-decreasing group)	2.331*** (.130)	-.612*** (.065)
Father	1(upper middle-unchanged group)	2.880*** (.025)	.025 (.013)
	2(middle-decreasing group)	2.584*** (.040)	-.244*** (.021)
	3(below middle-decreasing group)	2.345*** (.092)	-.641*** (.046)
	4(high-increasing group)	3.024*** (.071)	.442*** (.036)

* p<.05, ** p<.01, *** p<.001

동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증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101명(10.9%)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3.024(p<.001), 선형변화율 .442(p<.001)이다.

3.3 잠재계층에 따른 학업성취 변화 양상

중3-고2 시기 동안의 학업성취 변화 양상은 무변화 모형보다 선형변화 모형이 더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다집단 선형성장모형 분석 결과(Table 5 참조), 어머니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 계층에 따라 중3-고2 시기 동안의 학업성취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의 초깃값은 잠재계층 3(상-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1(증상-무변화 집단), 잠재계층 2(중-감소형 집단), 잠재계층 4(중하-감소형 집단)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다. 잠재계층 3, 4는 학업성취 수준의 변화가 없는 반면, 잠재계층 1, 2는 학업성취 수준이 감소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1은 매년 평균적으로

Table 5. Results of multiple group analysis (Academic achievement)

	Parameter		Estimate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Mother	2016	Mean	3.10	2.99	3.25	2.82
		SD	.74	.80	.81	.87
	2017	Mean	3.00	2.89	3.16	2.86
		SD	.64	.74	.69	.70
	2018	Mean	2.96	2.86	3.18	2.69
		SD	.60	.68	.69	.83
	Intercept		3.090***	2.975***	3.227***	2.863***
	Linear		-.069***	-.064*	-.034	-.068
Father	2016	Mean	3.12	3.02	2.87	3.29
		SD	.75	.75	.84	.80
	2017	Mean	3.03	2.92	2.83	3.15
		SD	.62	.73	.76	.68
	2018	Mean	3.00	2.82	2.83	3.25
		SD	.59	.66	.76	.66
	Intercept		3.107***	3.016***	2.866***	3.245***
	Linear		-.060**	-.099***	-.020	-.019

* p<.05, ** p<.01, *** p<.001

-.069, 잠재계층 2는 매년 평균적으로 -.064 만큼 학업 성취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집단 선형성장모형 분석 결과(Table 5 참조),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에 따라 중3-고2 시기 동안의 학업성취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학업성취의 초깃값은 잠재계층 4(상-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1(중상-무변화 집단), 잠재계층 2(중-감소형 집단), 잠재계층 3(중하-감소형 집단)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다. 잠재계층 3, 4는 학업성취 수준의 변화가 없는 반면, 잠재계층 1, 2는 학업성취 수준이 감소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1은 매년 평균적으로 -.060, 잠재계층 2는 매년 평균적으로 -.099 만큼 학업성취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잠재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중3-고2 시기 동안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은 무변화 모형보다 선형변화 모형이 더 타당하였다. 다집단 선형성장모형 분석 결과(Table 6 참조), 어머니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에 따라 중3-고2 시기 동안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삶의 만족도의 초깃값은 잠재계층 3(상-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1(중상-무변화 집단), 잠재계층 2(중-감소형 집단), 잠재계층 4(중하-감소형 집단)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다. 잠재계층 4는 삶의 만족도의 변화가 없는 반면, 잠재계층 1, 2, 3은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패턴

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1은 매년 평균적으로 -.105, 잠재계층 2는 매년 평균적으로 -.128, 잠재계층 3은 매년 평균적으로 -.087 만큼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집단 선형성장모형 분석 결과(Table 6 참조),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에 따라 중3-고2 시기 동안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삶의 만족도의 초깃값은 잠재계층 4(상-증가형 집단), 잠재계층 1(중상-무변화 집단), 잠재계층 2(중-감소형 집단), 잠재계층 3(중하-감소형 집단)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다. 잠재계층 1, 2, 3, 4 모두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감소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1은 매년 평균적으로 -.103, 잠재계층 2는 매년 평균적으로 -.113, 잠재계층 3은 매년 평균적으로 -.116, 잠재계층 4는 매년 평균적으로 -.084 만큼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잠재계층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 차이

어머니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중 3-고 2)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에 따라 고 2 시기의 진로장벽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진로장벽 인식의 3개 하위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모두 잠재계층 1(중상-무변화), 2(중-감소형), 4(중하-감소형) 집단이 잠재계층 3(상-증가형)집단 보다 평균 점수

Table 6. Results of multiple group analysis (Life satisfaction)

	Parameter		Estimate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Mother	2016	Mean	3.06	2.92	3.29	2.80	
		SD	.55	.59	.63	.62	
	2017	Mean	2.87	2.72	3.14	2.77	
		SD	.53	.50	.65	.59	
	2018	Mean	2.85	2.67	3.11	2.67	
		SD	.53	.55	.75	.75	
	Intercept		3.029***	2.898***	3.264***	2.808***	
	Linear		-.105***	-.128***	-.087**	-.064	
	Father	2016	Mean	3.09	2.93	2.85	3.35
			SD	.55	.56	.64	.61
2017		Mean	2.92	2.75	2.74	3.07	
		SD	.52	.54	.62	.59	
2018		Mean	2.88	2.70	2.61	3.18	
		SD	.53	.57	.66	.68	
Intercept		3.068***	2.904***	2.849***	3.278***		
Linear		-.103***	-.113***	-.116**	-.084*		

* p<.05, ** p<.01, *** p<.001

Table 7. Comparisons across the four-class profiles

Mother						Father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χ^2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χ^2
Career barriers: Lack of self-apprehension	Class 1	546	2.265	.032	43.806*** (3<1,2,4)	Career barriers: Lack of self-apprehension	Class 1	461	2.243	.034	32.568*** (4<1,2,3)
	Class 2	207	2.349	.049			Class 2	272	2.308	.045	
	Class 3	126	1.774	.076			Class 3	89	2.217	.091	
	Class 4	44	2.111	.146			Class 4	101	1.758	.087	
Career barriers: Lack of career-related information	Class 1	546	2.277	.030	39.517*** (3<1,2,4; 1<2)	Career barriers: Lack of career-related information	Class 1	461	2.247	.031	32.176*** (4<1,2,3; 1<2)
	Class 2	207	2.405	.049			Class 2	272	2.361	.043	
	Class 3	126	1.842	.076			Class 3	89	2.298	.090	
	Class 4	44	2.181	.140			Class 4	101	1.827	.084	
Career barriers: Lack of financial support	Class 1	546	2.026	.028	49.071*** (3<1,2,4; 1<2)	Career barriers: Lack of financial support	Class 1	461	1.973	.031	48.374*** (4<1,2,3; 1<2)
	Class 2	207	2.204	.047			Class 2	272	2.192	.039	
	Class 3	126	1.666	.062			Class 3	89	2.091	.074	
	Class 4	44	2.083	.120			Class 4	101	1.683	.067	

* p<.05, ** p<.01, *** p<.001

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중 3-고 2)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에 따라 고 2 시기의 진로장벽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BCH 방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진로장벽 인식의 3개 하위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모두 잠재계층 1(중상-무변화), 2(중-감소형), 3(중하-감소형) 집단이 잠재계층 4(상-증가형)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논의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보다 진로 발달 수준이 낮은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37], 특히 다문화 가정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및 진로장벽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3-고2 시기 동안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은 공통적으로 4개 잠재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어머니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경우 첫 번째 잠재계층인 '중상-무변화 집단(546명, 59.2%)'은 3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지만,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의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중-감소형 집단(207명, 22.4%)'은 3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상-증가형 집단(126명, 13.7%)'은 3년 동안 가장 높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잠재계층인 '중하-감소형 집단(44명, 4.8%)'은 3년 동안 가장 낮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경우 첫 번째 잠재계층인 '중상-무변화 집단(461명, 49.9%)'은 3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지만,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의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중-감소형 집단(272명, 29.5%)'은 3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중하-감소형 집단(89명, 9.6%)'은 3년 동안 가장 낮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잠재계층인 '상-증가형 집단(101명, 10.9%)'은 3년 동안 가장 높은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보이면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계층의 대표적인 특징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공통적으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높은 상-증가형은 중3-고2 동안 진로관련 지지 행동이 증가하는 반면,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감소형, 중하-감소형은 중3-고2 동안 진로관련 지지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진로관련 지지 행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잠재계층을 대상으로 중학교 시기에 다문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진로지지 행동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로관련 지지 행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시기부터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낮은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진로 분야의 체험기회 및 직업 정보를 찾도록 격려하고, 진로 선택에 대한 조언 등[17]의 지지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에 따라 중3-고2 시기 동안의 학업성취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공통적으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높은 잠재계층 순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초깃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공통적으로 상-증가형 집단, 중하-감소형 집단은 중3-고2 시기 동안 학업성취 수준의 변화가 없는 반면, 중상-무변화 집단, 중-감소형 집단은 중3-고2 시기 동안 학업성취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3년 동안 계속 '상-증가형 집단'이 가장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체로 부모의 진로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 준비, 학교 참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변인-중심적 접근의 선행연구 결과[18, 20]와 맥을 같이한다. 부모의 진로 관련 지지 행동은 청소년의 진로 관련 목표 및 심리적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많은 학업 참여를 끌어내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중3-고2 동안 진로관련 지지 행동이 증가하는 상-증가형 집단의 경우에도 학업성취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사회적 편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학업 관련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

화 양상을 토대로 한 잠재계층에 따라 중3-고2 시기 동안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공통적으로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높은 잠재계층 순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초깃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기초했을 때 중하-감소형 집단은 중3-고2 시기 동안 삶의 만족도의 변화가 없는 반면, 다른 잠재계층은 모두 감소하는 패턴이며, 아버지에 기초했을 때 모든 잠재계층이 중3-고2 시기 동안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패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머니에 기초했을 때 잠재계층 3(상-증가형 집단), 1(중상-무변화 집단), 2(중-감소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 감소가 작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에 기초했을 때 잠재계층 4(상-증가형 집단), 1(중상-무변화 집단), 2(중-감소형 집단), 3(중하-감소형 집단) 순으로 삶의 만족도 감소가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3년 동안 계속 '상-증가형 집단'이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진로 지지가 진로 적응성을 부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6]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가족 구조, 가구의 경제적 수준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더 많이 설명한다는 선행연구 결과[24]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행동뿐 아니라[38],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육행동 또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는 스트레스의 완충제 및 적응적 기능을 해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39],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은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진로관련 지지 행동의 변화 양상(중 3-고 2)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고 2 시기의 진로장벽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진로장벽 인식의 3개 하위 요인(자기 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에서 중상-무변화, 중-감소형, 중하-감소형 집단이 상-증가형 집단보다 다문화 청소년이 진로장벽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진로개발역량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9, 21].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은 의미있는 기회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유능감을 촉진하게 되며[40], 결과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 인식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진로관련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다수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횡단자료를 활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종단자료에 기초하여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 변화 유형과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장벽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 변화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 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등의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진로관련 지지 행동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로관련 지지 행동 수준이 낮은 잠재계층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진로관련 지지 행동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부모와 자녀 간 진로관련 지지 행동 지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 진로관련 지지 행동 지각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Y. J. Kw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elinqu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No.39, pp.177-204, 2017.
- [2] H. A. Jo, S. O.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lf-deter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learning environmen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8, No.6, pp.1011-1026, 2017.
DOI: <https://doi.org/10.22143/HSS21.8.6.68>
- [3] J. H. Noh, H. N. Song, "Verif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between parents' neglect and adolescents' satisfaction in life: Intermediary roles of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5, No.3, pp.193-208, 2019.
DOI: <https://doi.org/10.33770/JEBD.35.3.9>
- [4] M. Carmona-Halty, M. Salanova, W. B. Schaufeli, "The strengthening starts at home: Parent-child relationships, psychological capital, and academic performance -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Current Psychology*, 2020.
DOI: <https://doi.org/10.1007/s12144-020-00898-8>
- [5] J. J. Jabaghourian, N. Sorkhabi, W. Quach, A. Strage, "Parenting styles and practices of Latino parents and Latino fifth graders' academic, cognitive, social, and behavioral outcome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Vol.36, No.2, pp.175-194, 2014.
DOI: <https://doi.org/10.1177/0739986314523289>
- [6] A. Abubakar, F. J. R. Van de Vijver, A. O. Suryani, P. Handayani, W. S. Pandia, "Perceptions of parenting style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rban Indonesi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4, No.9, pp.2680-2692, 2015.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4-0070-x>
- [7] E. K. Jung, D. H. Ah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utonomy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Multi-group analysis on belief in a just world level",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4, No.2, pp.399-418, 2018.
DOI: <https://doi.org/10.24159/joec.2018.24.2.399>
- [8] J. O. Park, E. J. Oh,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life satisfaction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6, No.2, pp.93-103, 2018.
- [9] H. R. An, S. H. Yi, "Academic achievement: Comparison of childre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0, No.1, pp.1-10, 2009.
- [10] Y. D. Jo, E. J. Kang, H. K. Ko, "Analysis on the achievement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and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by school classes in 2011 national assessment educational achievement", *School Mathematics*, Vol.15, No.1, pp.179-199, 2013.
- [11] S. Y. Yim, M. H. Park, "Behaviors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compared to gene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3, pp.1641-1651, 2014.
- [12] M. Jang, J. S. Chun,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 comparison with children from Korean families", *Family and Culture*, Vol.25, No.4, pp.182-213, 2013.
- [13] Y. J. Nam, S. K. Ah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fathers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career aspiration - A comparison between general and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0, No.4, pp.1-25, 2017.
- [14] S. M. To, C. W. V. Wong, M. W. Yan, X. Sum,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parent career behavior checklist in a sample of non-engaged youth and their parents", *Child Youth Care Forum*, Vol.49, pp.469-487, 2020.
DOI: <https://doi.org/10.1007/s10566-019-09540-6>
- [15] M. S. Gordon, M. Cui, "Positive parenting during

- adolescence and career succes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4, No.3, pp.762-771, 2015.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3-9887-y>
- [16] J. Dietrich, B. Kracke,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5, No.2, pp.109-119, 2009.
DOI: <https://doi.org/10.1016/j.jvb.2009.03.005>
- [17] J. Zhang, M. Yuen, G. Chen,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for vocational school student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Vol.37, No.4, pp.346-354, 2015.
DOI: <https://doi.org/10.1007/s10447-015-9248-1>
- [18] J. C. Perry, X. Liu, Y. Pabian, “School engagement as a mediator of academic performance among urban youth: The role of career preparation, parental career support, and teacher suppor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38, pp.269-295, 2010.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09349272>
- [19] Y. J. Na, H. C. Ya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leisure activities and youth career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8, No.1, pp.19-36, 2019.
- [20] S. M. Choi, D. H. Lee,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career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Examination of the gender difference model”,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3, No.5, pp.295-318, 2017.
DOI: <https://doi.org/10.24159/joec.2017.23.5.295>
- [21] H. Y.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Latent profiles and their predict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21, No.2, pp.35-58, 2020.
DOI: <https://doi.org/10.15703/kjc.21.2.202004.35>
- [22] E. M. Yeon, H. S. Choi, “Latent profile analysis i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children’s career, psychological and academic outcom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8, pp.305-325,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8.305>
- [23] T. Dew, E. S. Huebner, “Adolescents’ perceived quality of life: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33, No.2, pp.185-199, 1994.
DOI: [https://doi.org/10.1016/0022-4405\(94\)90010-8](https://doi.org/10.1016/0022-4405(94)90010-8)
- [24] K. A. Levin, L. Dallago, C. Currie,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family structure, family affluence and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06, No.2, pp.287-305, 2012.
DOI: <https://doi.org/10.1007/s11205-011-9804-y>
- [25] A. Abubakar, F. J. R. Van de Vijver, A. O. Suryani, P. Handayani, W. S. Pandia, “Perceptions of parenting style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rban Indonesi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4, No.9, pp.2680-2692, 2015.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4-0070-x>
- [26] A. Parola, J. Marcionetti,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and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career-related parental behaviors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pp.1-15, 2021.
DOI: <https://doi.org/10.1177/0894845321995571>
- [27] M. Amani, M. Nazifi, N. Sorkhabi, “Parenting style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early adolescent girls in Iran: Mediating roles of parent involvement and self-regulated learning”,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Vol.35, pp.49-72, 2020.
DOI: <https://doi.org/10.1007/s10212-019-00422-y>
- [28] B. B. Chen,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academic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self-worth”,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6, No.8, pp.2070-2076, 2017.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7-0728-2>
- [29] S. W. Plunkett, A. O. Behnke, T. Sands, B. Y. Choi, “Adolescents’ reports of parental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8, No.2, pp.257-268,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964-008-9325-4>
- [30] L. Boonk, H. J. M. Gijsselaers, H. Ritzen, S. Brand-Gruwel,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indicators and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Research Review*, Vol.24, pp.10-30, 2018.
DOI: <https://doi.org/10.1016/j.edurev.2018.02.001>
- [31] M. Wang, X. Deng, X. Du, “Harsh parent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hinese adolescents: Potential mediating roles of effortful control and classroom engag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67, pp.16-30, 2018.
- [32] A. R. Cho S. K. Yoon, E. J. Yang, “Validating the 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0, No.3, pp.389-408, 2013.
DOI: <https://doi.org/10.16983/kjisp.2013.10.3.389>
- [33] <https://www.nypi.re.kr/archive>
- [34] E. S.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 validity of a career barriers scale for femal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5.
- [35] T. Asparouhov, B. Muthé,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36] E. M. Yeon, H. S. Choi,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trajectories in self-efficacy with their life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adul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4 pp.273-280,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4.273>
- [37] B. H. Nam, C. O. Choi, "A study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5, No.3, pp.117-137, 2012.
- [38] E. Oberle, K. A. Schonert-Reichl, B. D. Zumbo,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 neighborhood, school,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0, pp.889-901, 2011.
- [39] D. Yucel, A. S. V. Yuan, "Parents, siblings, or friends? Exploring life satisfaction among early adolescents",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Vol.11, pp.1399-1423, 2016. DOI: <https://doi.org/10.1007/s11482-015-9444-5>
- [40] Y. Guan, F. Wang, H. Liu, Y. Ji, X. Jia, Z. Fang, Y. Li, H. Hua, C. Li,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A three-wave investigation among Chinese under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86, pp.95-103, 2015. DOI: <https://doi.org/10.1016/j.jvb.2014.10.007>
- [41] H. H. Jeon C. A. Lee, J. W. Choi, S. H. Hong, "Job expectation trajectories of the elderl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personal factor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19, No.4, pp.97-126, 2019.
- [42] E. M. Yeon, H. S. Choi, "Exploring the latent profiles i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cceptance toward disability of the disabled to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3, pp.133-152,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3.133>

최 호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

윤 흥 주(Hongju Yun)

[정회원]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행정, 교육정책평가, 교육재정